담양군, 3기 '정원관리사 프로그램 가든서포터즈' 성료

정원관리사 교육 통한 주민주도 마을관리 기대

정원 전문가 초청 총 5회 걸쳐 진행…견학도 실시

담양군은 지난 6월 14일부터 진행한 "2022년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인 '정원관리사 프로그램 가든서포터즈 3기'(이하 정원관리사 프로그램)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담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이 사업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직접 마을정원을 만들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원관리사 가든서포터즈' 기초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지역 내 정원 전문가를 초빙해 총 5회에 걸쳐 ▲정원의 이해 ▲마을정원사의 역할 ▲국내외 사례를 통한 정원분석 ▲정원 식물 및 재료의 이해 ▲마을정원 만들기 실습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마을정원사 역할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 민간정원 2호 '죽화경'을 견학하며 마을정원사의 역할과 필요성, 식재수종의 특징을 통해 지역에 맞는 꽃과 나무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료한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정원사에 대한 이해와 도시재생사업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앞으로 담양읍의 정원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족감을 보였으며, 참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주민들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올해 3기째로 많은 참여 주민의 호응 속에 진행해 온 정원관리사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군, 전국 최초로 민원실 팀장 전원 민원창구 전면 배치

화순군이 민선 8기를 맞아 군청 민원실 창구에 팀장을 전면 배치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화순군뿐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민원창구에 신규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

화순군은 민선 8기를 맞아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군민에게 한층 더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민원과 팀장 8명 전부를 민원창구로 배치했다.

팀장들은 다년간의 근무 경험으로 민원응대와 업무처리에서 능숙하게 대처가 가능해 군민이 훨씬 더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팀장 민원창구 전면 배치는 전국에서 화순군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에게 격이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민선 8기 신임 구복규 화순군수의 군정 철학이 담긴 시책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팀장 민원창구 배치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신의 한 수'로 새로운 화순에서 더 행복해질 군민을 위해 창구에서 군민 응대에 최선을 다하여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겠다"며 "민선 8기 군정 슬로건인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를 실현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군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실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입소문 제대로 터졌다"…곡성 아이스크림 페스티벌 성료

곡성군이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레저문화센터에서 개최한 '곡성 아이스크림 페스티벌'이 전국 입소문을 제대로 탔다.

곡성군은 여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해 처음 곡성 아이스크림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축제를 통해 여름철 관광지로서 곡성군의 이름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축제는 행사장 규모가 섬진강 기차마을에 비해 넓지 않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개최 첫날부터 이른바 '혜자(가성비가 좋은) 페스티벌'로 입소문을 탄 건이 주효했다.

곡성군은 축제 3일간 약 15,000명의 방문객이 페스티벌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픈 시간인 오전 9시가 되자마자 곡성군이 마련한 좌석 1,000석이 동났다. 또한 약 300여 팀이 돗자리와 캠핑 장비를 준비해 축제장 곳곳을 가득 채웠다.

이번 페스티벌이 '혜자'라고 입소문을 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모든 물놀이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등 편의 시설도 전면 무료로 개방했다. 체육관을 무더위 쉼터로 조성해 물놀이에 지친 방문객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건, 부채, 방수 마스크, 젖은 옷을 담을 봉투까지 제공하는 세심함으로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야말로 몸만 오면 신나게 놀고 먹고 쉬다 갈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축제장 한편에서는 특색 있는 아이스크림과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직접 판매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곡성읍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곡성멜론(주)를 비롯한 지역 상인들은 직접 만든 토란, 멜론, 와사비 아이스크림과 쥬스 등 달콤한 디저트를 판매하며 연신 즐거운 표정이었다.

물놀이 시설 마감 시간인 19시부터는 무대 공연이 펼쳐졌다. 관객과 공연단이 함께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며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공연이 이어졌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에는 "이런 행사가 생겨서 너무 좋다.", "내년에도 또 가야겠다.", "아이가 자꾸 가자고 해서 3일 내내 방문했다."라는 등 칭찬 일색이었다.

군 관계자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첫 행사다보니 미숙한 점도 있었다. 다음에는 더욱 시원하고 정비된 모습으로 찾아뵐테니 그때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방문객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구례군, '농촌에서 살아보기'(2기) 참가자 모집

9월부터 프로그램 운영…오는 8월 12일까지 참가자 6세대 모집

구례군은 오는 8월 12일까지'농촌에서 살아보기'(2기) 참가자 6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운영마을은 구례군 마산면에 위치한 지리산 효장수권역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올해 1기(6세대)는 4월부터 7월까지 참가하여 수료를 마쳤고, 2기는 9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9월부터 최대 3개월간 농촌에 거주하며 농촌과 지역에 대해 알아보고, 영농실습 교육 등'귀촌형'연수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되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월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급된다.

참가신청 자격은 전남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도시민이며,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동)지역 거주민이면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 좌측 상단에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배너를 클릭하고 원하는 지역과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나주 왕곡면, 주민자치위원 여름꽃 식재 구슬땀

나주시 왕곡면 주민들이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을 위한 여름 꽃 식재에 구슬땀을 흘렸다.

왕곡면은 최근 주민자치위원들과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인도변에 메리골드를 비롯한 여름 꽃 4종, 1600여본을 식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꽃 식재는 여름철 무더위와 코로나19에 지친 주민들의 일상 속 치유와 더불어 아름다운 미관 조성을 통해 면 소재지 상가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됐다.

문기열 주민자치위원장은 "비 소식을 앞두고 무더위와 가뭄이 해소되고 아름다운 여름 꽃길을 보며 주민과 방문객들이 잠시 동안이라도 소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SPS 포스코엠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터미날 포스코A&C